

시론



김 춘 식
동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교수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일상의 편리함은 극대화됐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정서적 유대는 역설적으로 열어지고 있다. 화면 속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지만, 현실 속 개인은 파편화돼 깊은 외로움과 고립에 직면한다. 재독철학자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지적했듯, 현대인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과잉 성과’의 압박 속에 자가방전되며,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마저 잃은 채 극심한 영혼의 피로를 겪고 있다.

이 고립과 피로의 그늘이 가장 짙게 드리운 곳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노년층이다.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느끼는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 나아가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은 넘어선 사회적 경고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의 상바오(項鰲) 소장은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과 ‘초가족’의 혼란이 기술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기반인 ‘덧’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인간이 권위와 규범을 답습하며 ‘AI를 흉내 내는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한 그는, 추

기술의 시대, 소공동체 ‘살롱’서 찾는 인간의 자리

상적인 매체에 휘둘리기보다 일상에서 이웃과 만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구체적인 삶의 면역력’과 ‘연결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센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노년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구체적 연결망을 통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역사 속 소공동체들이 위기를 헤쳐 나온 지혜에 있다. 18세기 유럽의 ‘살롱(Salon) 문화’가 대표적이다. 계몽주의 시기 신본과 성별의 문턱을 허문 이 작은 모임들은 단순한 사교를 넘어, 근대 이행기의 인간성 상실에 맞서 대안적 담론을 자발적으로 형성해 낸 지적 공론장이었다. 볼테르와 루소 같은 사상가들의 성찰이 살롱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났듯, 대면의 만남은 위기의 순간마다 공동체를 지켜낸 힘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조선 시대 사림이 도입한 ‘향약(鄉約)’은 주민들이 모여 상부상조하며 도덕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형 소공동체였으며, 가톨릭교회의 ‘기초교회공동체’ 운동 역시 삶과 신앙을 나누며 인간 소외에 맞선 연대의 보루였다.

오늘날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이러한 자발적 움직임들이 피어나고 있다. 영광 지역의 오래된 이웃 간 우애인 ‘피앗’ 소모임, 최근 나주 다보사에서 시작된 공동체 회복 모임 ‘지혜의 뜰’, 지역 대학과 함께 하는 나주 카페 바실리에의 리빙랩 ‘바느질수다교실’, 마

을공동체의 대명사인 ‘성미산마을’, 그리고 전국 각지의 민간 인문 독서 모임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는 기술 문명의 부작용과 노년의 외로움에 맞서 인간의 온기를 지켜내는 단단한 ‘현대판 살롱’이다.

문제는 현실의 정적이다. 현재의 노인 복지과 지자체 정책은 여전히 급식 지원이나 일회성 강좌 같은 수동적·시혜적 틀에 머물러 있어, 기술 격차로 노년층이 겪는 무력감과 정신적 피로를 보듬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거대한 기술의 파도와 초고령화 속에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소외를 풀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려면,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공동체 회복운동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와 복지당국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의 자발적 소공동체와 인문 살롱이 스스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간, 프로그램, 정서적 네트워크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18세기 유럽의 살롱이 근대 사회의 새로운 길을 열었듯, 오늘 우리 곁의 작은 소공동체들은 기술 중심 사회에서 인간의 자리를 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다. 남의 목소리나 AI를 흉내 내는 삶에서 벗어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삶의 고단함을 나누고 연대하는 일이야말로 노년의 고립을 막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삶의 마지막 보루다. 소공동체 살롱들이 퍼뜨리는 따뜻한 온기가, 기술과 노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한층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가꿔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의료칼럼



곽 희 호
목포청연안방병원장

어깨는 엉덩관절, 무릎관절에 비해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다. 마치 골프공이 얇은 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넓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만 금방이라도 공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불안정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특히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대결절의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염증이 유발되는 병적인 상태를 어깨의 충돌 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of shoulder)이라고 한다.

충돌 증후군은 어깨 통증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원인은 어깨관절의 공간은 위쪽에 견갑골의 견봉과 아래쪽에 상완골의 대결절이 위치하고 이 사이로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이 지나가는 구조이다. 팔을 위로 드는 동작을 자주 하게되면 견봉이 퇴행돼 골극이 생겨 힘줄을 건드릴 수 있다. 반대로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지 않더라도 회전근개 근육이 손상돼 변형되면 어깨의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완골이 불안정해지며 움직임 시에 상완골이 위로 떨어질라가 견봉 아래쪽 조직들을 압박하게 된다. 그리고 회전근개 근육에서는 극상근의

어깨가 아프며 소리가 나는 ‘어깨 충돌 증후군’

손상이 대표적이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어깨에 국한된 통증이다. 통증은 팔을 들어올리는 외전 동작에서 심해지며 어깨의 앞과 옆에 통증이 잘 나타난다. 특히 팔을 편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180도까지 들어올릴 때 60도에서 120도의 범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동통호 현상(Painful arc)을 보인다. 충돌 증후군이 악화돼 염증이 발현되면 야간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통증 다음으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엄발음이다. 팔을 들어올릴 때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는 것인데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진단은 이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위주로 한다. 충돌로 인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학적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데 상기한 동통호 현상, 니어 검사(Neer sign), 호킨스-케네디 검사(Hawkins-Kennedy test)를 활용한다. 니어 검사는 환측 팔의 힘을 빼고 팔을 회내시켜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검사자가 환측 손목을 잡고 팔을 들어올려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니어 검사와 호킨스-케네디 검사에서 통증이 나타나면 극상근의 충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인 나타나면 영상 검사로 넘어간다. X-ray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X-ray 검사에서는 견봉의 골극, 상완골의 외곡화, 석회성 건염을 확인해 견관절의 골성 구조물을 파악해낸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회전근개 근육의 두께, 파열여부와 점액낭염을 진단하며 실시간으로 움직임 검사를 시행해 회전근개 근육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의 목표는 통증 억제와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회복이다. 비수술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뉘며 비수술치료는 양방의학의 약물치료와 한방의학의 침구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는 진통소염제와 근이완제를 주로 처방하며 즉각적인 진통효과는 있으나 충돌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다. 침구치료는 약침치료를 시술한다. 전통적인 경혈 침치료를 팔을 옆으로 수평이 되게 들어올리면 어깨관절의 앞뒤로 두 개의 오목한 구멍이 생기는데 앞쪽이 견우(肩窩)혈, 견로(肩髃)혈이다. 그리고 초음파를 확인, 회전근개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곳을 보고 해당 병변에 약침을 주입하는 초음파 유도하 약침요법도 효과적이다.

수술치료는 비수술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해도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극심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견봉에 자라난 골극을 제거하는 견봉 성형술이나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이 대표적이다.

충돌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관리가 필요하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때는 동작을 천천히 수행하며, 팔이 몸의 중심선에 가능한 가깝게 두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어깨관절의 스트레칭과 함께 라운드 숄더 또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 시에는 환측 어깨가 아래로 향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므로 천장을 보고 바로 눕는 자세가 좋다.

어깨가 소리가 난다고 하여 무심코 지나치기 말고, 통증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독자투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고령 운전자들이다. 특히 전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고령자 사고는 이에 역행하며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는 노쇠로 인한 반응속도 저하와 시야 협착 등으로 운전 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행할 때도 걷는 속도가 느려 횡단 중 사고에 취약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면허 반납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많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가용이 없다면 병원이나 행정복지센터, 시장 등 이동에 자가용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면허 반납이 병원 진료 횟수 감소와 생필품 구매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도 초고령자 비율이

매우 큰 지역이다. 실제로 현장 홍보와 계도 등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율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고령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이동환경을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운전 횟수를 줄이거나 중단해도 병원, 시장, 지인 등을 만날 수 있어야 비로소 고령자의 교통안전이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농지 전수조사, 정부와 농민단체 소통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원칙대로 추진하되, 실경작자 보호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후속대책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농지 전수조사 핵심은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투기·불법 이용을 걸러내고 농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농지를 실제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투기·불법 이용을 줄이고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나 상속농지, 부재지주 등의 현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농민의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최근 전남광주특별자치회 전남청사에서 특별시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일었다.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나 불법 농지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관련 데이터를 국가가 향후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이지만,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 정보는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처럼 농촌의 경우 다양한 사정을 무조건 불법 농지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령, 질병,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 있을 수 있고, 농촌에는 오랫동안 형성된 임대·경작 관행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고 투기 또는 불법이라는 식의 판단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관행적 임대차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해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하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농지 조사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사를 바로 세우고 실경작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행성 온라인 랜덤 뽑기, 방치해선 안된다

사행성 온라인 랜덤 뽑기가 가세를 부리고 있다. 돈을 내고 무작위로 경품을 뽑는 이른바 ‘오리파’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가 포켓몬 카드나 피규어 등을 내걸고 이용자들의 반복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본보에 따르면 오리파는 ‘오리지널 팩’의 줄임말로, 판매자가 여러 종류의 트레이딩 카드를 임의로 구성한 뒤 구매자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입하는 방식이다. 카드 제작사가 정해진 구성으로 판매하는 정규 카드팩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상품 구성과 당첨 상품 등을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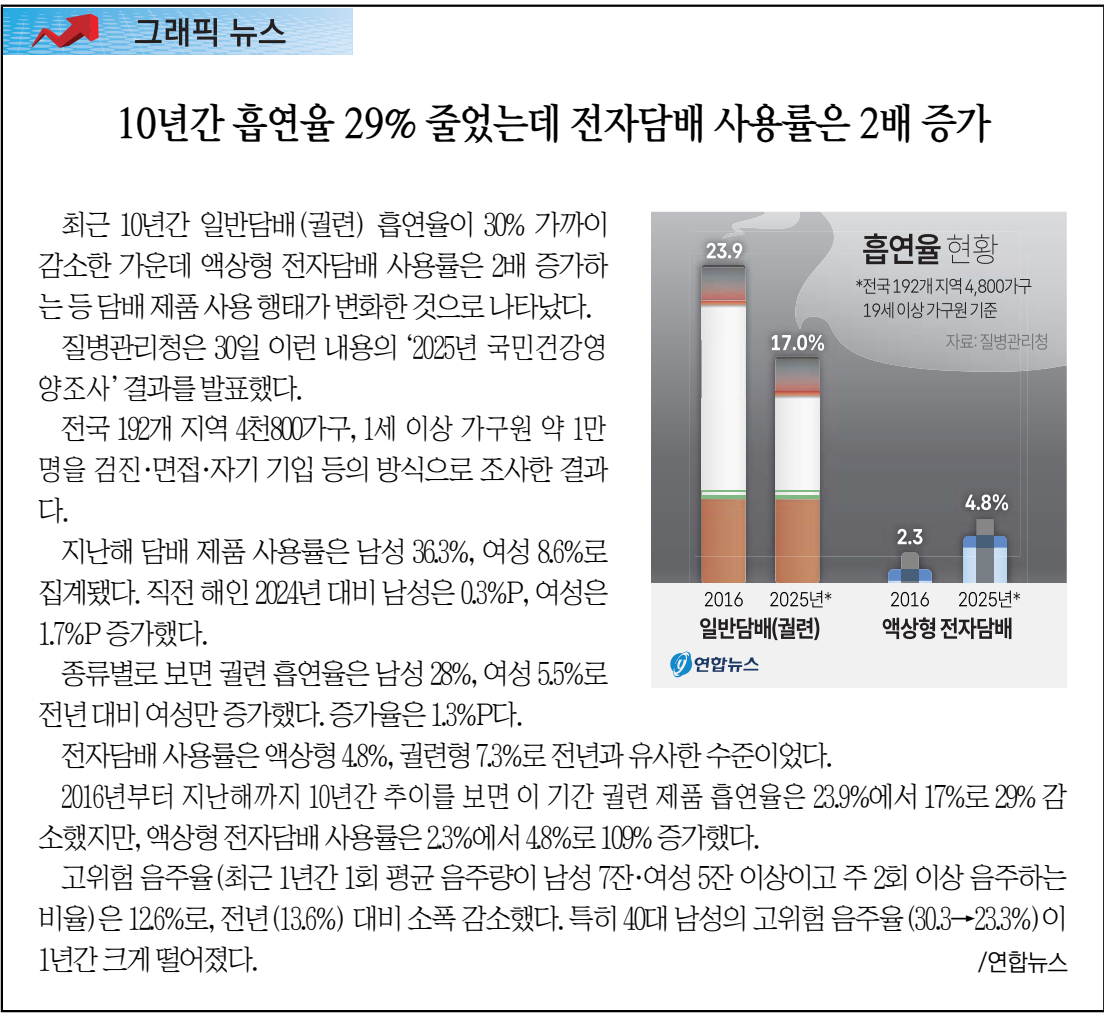
문제는 오리파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사행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뒤 무작위 상품을 뽑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첨된 상품을 배송받는 대신 다시 포인트로 전환해 추가 뽑기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얻지 못하면 이미 얻은 상품을 포인트로 바꾸고 다시 뽑기를 시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서 결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여기에 있다.

실제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가량을 결제한 뒤, 후회와 부담을 호소하는 이용자도 잇따르고 있다. 첫 구입 금액은 작았지만 손실을 만회하거나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멈추지 못하고 추가 결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지출만 커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추첨의 객관성과 상품 재고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가 상품이 남아 있는지, 언제 나오는지를 오로지 온라인 상에 표출된 정보만 믿고 계속 결제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해 할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관련 기관은 청소년의 접근 가능성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은 만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북부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사회부	650-2040	T V 본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인무국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사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로목 월 15,000원 1부 800원